

자사고 '당혹감' 속 자공고 "속좁은 결정" 황당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광주고교 반응

일반고도 "덤덤"…수월성 교육 반대 시교육청 "환영"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의 성적 제한 폐지 등을 딛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하자 광주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반고들은 지금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일반고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

은 될 수 없다며 시큰둥했다. 반면, 수월성 교육을 반대해왔던 광주시교육청은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자공고가 폐지되면 '공자사고(公私低高·공립고 학력이 낮고 사립고는 높음)'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사고·자공고 "충격" = 광주지

역 자사고인 송덕고와 송원고는 2015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원 때 성적 제한을 없애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윤세웅 송덕고 교감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더우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 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무엇으로 차별하라는 것인가"며 "사실상 자사고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다음 주에 만나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임모(45)씨는 "자사고는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게 큰 장점인데 일반고를 키우려고 자사고를 죽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180도 바꾸면 누굴 믿고 학교에 보내겠느냐"고 반발했다.

상일여고·광주고·광주제일고 등 공립고 신뢰와 학력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자공고들도 "일반고와

차별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종근 광주교 교장은 "자공고의 성공 케이스로 광주가 힘하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없앤다니 당혹스럽다"며 "일반고 환폐화 지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속좁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반고 시큰둥=4년 5000만원 씩 재정 지원을 받게 된 일반고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이번 대책만으로는 일반고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한 일반고 교장은 "다수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늘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자사고가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이 대거 일반고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장귀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이 추구했던 방향과 일치한다. 광주교육이 전국화된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반겼다.

교원단체는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반고가 각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관심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 평생·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대학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이 더욱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태극기 받아가세요"

제68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부림2차 아파트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과 바르게살기 운동 북구협의회원들이 입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살인더위, 동남아보다 더 뜨거웠다

광주·전남 1주간 최고기온 홍콩·필리핀·태국보다 높아

내달 중순까지 무더위 지속…이달 하순엔 많은 비 예고

"아무리 더워도 살마 광주·전남이 동남아보다 더 덥겠어?"

최근 광주·전남을 훨씬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아열대 지역 동남아 대부분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날씨 전문업체 웨더닷컴(www.weather.com)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평균 최고

기온은 ▲광주 35도 ▲장흥 33.9도 ▲고흥 33.8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남아 지역의 경우 홍콩 33.1도를 비롯, ▲필리핀 라오스 30.6도 ▲캄보디아 프놈펜 29.2도 ▲말레이시아 캄퐁바루 31.4도 ▲태국 방콕 32.8도 ▲인도네시아 자부르 30.6도 등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2~5도 가량 낮았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서로 강하게 확장해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엔 폭염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 동남아 지역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졌다"며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점도 기온 차이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기에 들어가는 8월 하순, 광주·전남 지역 기온은 평년(25도)과 비슷 하지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9월 중순까지는 고기압과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폭염 속 에어컨·실외기 화재 잇따라

광주·전남 에어컨 화재 6건

살인적인 폭염으로 가정·산업체의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에어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13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여름철(6월~8월 12일) 불볕 더위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광주·전남에서 모두 6건(전남 5건·광주 1건)의 에어컨 등 냉방기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고흥군 고흥읍 최모(61)씨의 조립식 폐널 건물에서 불이나 건물 내 40㎡와 집기류 등을 태워 73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끈졌다.

소방당국은 사무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의 낡은 배선에서 발화된 점에 주목,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J아파트 조모(38)씨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나 실외기와 연결선 등을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 화재는 대부분 관리 소홀에 따른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면서 "에어컨 먼지 제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외기는 통풍이 잘 이뤄지는 곳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희귀종 저어새 영광 갯벌서 생존"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치주적장치 부착 확인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인 저어새(사진)가 영광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는 여름 철새이자 천연기념물(제205-1호)인 저어새에 위치주적장치를 부착, 주목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연기념물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순에 영광군 칠산도에서 부화한 어린 저어새 5마리에게 위치주적장치(GCT)를 부착한 뒤, 애생동물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한 결과



약 한 달 뒤에도 이들이 모두 영광 갯벌 인근에서 생존해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일곡중학교

폭염에 개학 연기

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등 교육과정을 단행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중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라 광주 일곡중학교가 개학일을 16일에서 21일로 늦췄다.

폭염이 계속될 경우 광주·전남 지역 초·중학교의 개학 연기는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e.com.kr 또는 ipalge.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자연산 참옻을 직접 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옻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친한 가격"

옻닭 토종 참옻닭 / 옻 청동오리 / 옻 삼계탕

한방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촌닭백숙

옻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옻닭 062-515-5757(옻칠옻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밸리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